

아이디어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쓰지 않는 머리는 녹슨다

인간은 고도의 두뇌를 가졌기에 다른 동물보다 우수하다. 이 우수한 두뇌로 인간은 먼 옛날부터 모든 의문을 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여, 실험하고 추리를 되풀이하여 자연을 정복했다.

원시인은 「자연의 노예」였으나 현대인은 「자연의 정복자」가 되었다.

인체에서 가장 빨리 발달하는 부분은 두뇌다. 대체로 뇌와 신경계의 무게는 10세경이던 갑자기 완성되며, 다른 기관인 뼈·내장·근육 등은 훨씬 늦게 17세~20세 경에야 완성된다.

뇌의 무게는 4세~20세 동안에 겨우 120g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뇌의 발달은 태어나자 이미 150억이나 되는 뇌세포로 꽉 차 있다.

하나하나의 세포가 몇 10개의 많은 가지를 뻗어 서로 휘감겨 상상할 수 없이 복잡하다.

두뇌발달의 변화는 3번의 큰 고비가 있다.

첫번째는 0세~3세까지 뇌세포의 배선은 60%에 이르고 「모방의 시대」로 장차 큰 인물로 키워려면 착실히 길러야 할 때다.

두번째는 4세~7세로 「자기주장

의 시대」에 접어든다. 제 1반항기다. 어린이가 갑자기 말을 잘 안듣는다고 꾸짖기만해서는 안된다.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켰으니 좋은 방향으로 키워줌이 필요하다. 어른의 생각대로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세번째 고비는 10세 전후며 여기서 90%까지 이루어지며, 나머지 5%는 천천히 휘감겨서 20세 전후에 완성된다.

지금부터 60여년 전에 인도의 칼카타 부근에서 늑대에게 길러진 두 소녀를 구출했다. 이른바 「야생아」였다. 어릴 나이는 2세와 8세, 어느 목사가 인수하여 「사람답게」 기르 고자 힘써서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얼굴 모양은 인간이나 하반 인은 모두 늑대 같았다.

2세의 아파라는 1년뒤에 죽고, 8세의 카마라는 9년 동안 더 살았다.

처음에는 4발로 걷고, 닭을 날르 뜰고, 조그만 소리에도 귀를 세우고, 밤 10시·1시·3시만 되면 으르렁거리며 이를 드러내어, 성낸 카마라, 물론 사람의 말은 몰랐으나 목사의 노력으로 1년 후에는 서서 걸게됐다. 그러나 급하면 4발로

되다가고, 말은 겨우 45단어밖에 못 기억했다. 이는 두뇌발달에 맞는 교육의 중요함을 보여 준 좋은 본보기다. 미국 심리학자 왓슨은 자신있게 다음처럼 장담했다.

「갖 태어난 건강한 아기를 몇 준다면, 예술가·교육자·도둑놈...무엇이나 만들어 보이겠다.」

인생은 단 한번의 초대다

옛부터 전해오는 말에 이런 말이 있다. 「무엇보다 몸이 가장 귀하다(身外無物).」

귀여운 자녀에게 값비싼 옷의 걸치레보다 균형잡힌 음식과 무서운 질병을 예방해 주어야 한다.

사고의 95%는 미연에 막을수 있으며 불가항력의 것은 겨우 5%이하라고 한다. 부모들의 무지의 방심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인 90만명의 심신장애자가 있다. 이들은 사회로부터 「불구자」 심지어는 「병신」이라 모멸과 냉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가진 부모들 가운데는 재활의 길을 열어주려는 노력보다 애처롭고 창피스럽다는 생각에서 가정에다 숨겨두어 그들의 앞날을 더욱더 어둡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저마다 운명을 저주하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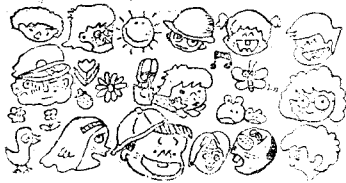
이제까지 홍역예방약·혈청·주



강 신 묵
〈새생각회 회장〉

사제 등의 공급을 비롯 「먹는 소아
다비 예방약」을 처음 개발한 한국
유일의 예방약품 전문기업인 동신
제약은 1974년 5월 5일 어린이 날
에 붙여 「어린이 건강현장」을 다음
과 같이 선언했다.

1. 어린이는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
2. 어린이는 질병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3. 어른들은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어린이를 예방하여 지켜줄 의무가 있다.
4.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주고 몸이나 정신이 불완전한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
5. 어린이는 발육과 건강을 해치는 어떠한 일도 강요받아서서는 아니 된다.



이 운동은 귀여운 어린이들을 무서운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어린이에게 ‘행복’을, 가정에는 ‘단란’을, 사회에는 ‘명량’을, 나라에는 ‘국력’을, 인류에게 ‘평화’를 배달해 주는 일로서, 어린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백만 원병이며, 기

업으로서도 어린이들이란 무진장의 보고라 할 수 있다.

현대는 「만든 것을 파는 시대」가 아니라 「팔릴 것을 만드는 시대」이며, 기업은 일반이 찾고 시대에 맞는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

인간생활에서 건강처럼 소중한 것은 없으며 특히 발명가는 건강한 몸을 가져야 한다. 그 비결은 영양을 고루 섭취하고 질병을 막아내고 무서운 전염병을 예방해야 한다.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들며 건전한 정신만이 슬기로운 아이 디어를 낳기 때문이다.

질병은 예방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방심하여 가래로도 못박아 백년을 암흑 속에 보내게 된다.

발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54살까지 보험권유원이었던 워트만은,

“아마도 죽을 때까지 부자가 될 수 없으리라.”

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한 건의 계약이 이루어져서 짜인을 하려할 때 잉크가 푹 떨어졌다.

그것이 불길하다고 계약이 깨져 버리고 말았다.

당시의 펜촉은 ㉗와 같았기 때문에 잉크가 잘 떨어지곤 했다.

그는 너무 분했기에 잉크가 떨어지지 않는 펜을 만들려고 펜을 많이 사와서 가위와 즐로 이모저모 손질해서 ㉘처럼,

“가운데에 홈을 내고 구멍을 뚫은 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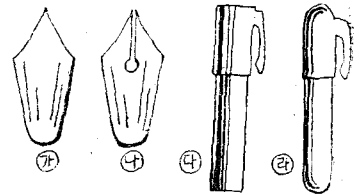
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너무 잘 써졌기 때문에 곧 특허권에 출원했다. 가난한 그는 펜을 사와서 밤이 되던, 아내와 함께 가위로 홈을 내고 즐로 구멍

을 뚫어 그것을 친구의 문방구점에 진열해 보았다.

뜻밖에도 매상이 올라 반년쯤 지나자, 수입금이 그의 봉급보다 더 많아졌다. 특허가 내리자 그의 허가없이는 누구도 만들어 팔수 없게 되었으며, 이것으로 한 의무원이 일약 세계의 만년필왕이 되었다.

지금은 파카라면 세계 제일의 만년필회사지만 그 옛날에는 공작기계 한대로 5~6명이 만년필대를 만들고 있었다. 파카는 항상 워트만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것을 본받



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는 비행기나 자동차나, 모든 것을 「유선형」으로 만드는 것이 대유행이었다.

우선 처음으로 생각한 것이, “유선형을 만년필에 써 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다.

그때의 만년필은 ㉘처럼 위 아래가 막대모양이었다. 이것을 ㉘처럼 가늘게, 끝을 둥글게 하여 의장으로 출원했다.

이것이 때를 만나, 오늘의 대기업으로 기초를 굳혔다. 발명광이었던 파카는, 남이 모방할수 없는 것을 만들어 공업소유권의 보호로 오늘의 놀라운 번영을 쌓아올렸던 것이다. 지금까지는 발명을,

“구름위에 등실 떠 있는 것.”

“학력이 낮으면 업무도 못내는 것.”으로만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큰 잘못이다. 펜과 만년필에서 보았듯이, 발명이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국민학교 어린이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남은 길은 다만 「실천하는 것」뿐이다.

〈계속〉